불교의식 '문두루법' 복원된다

진각종, 6월 14일 관련 연구발표… 국가안정 기원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나당전쟁 당시 당나라군을 막기 위해 치러진 국가차원의 불교의식인 '문두루법'. 국민들의 일치된 힘을 일궈낸 밀교 전통인 '문두루법' 의식을 복원하는 불사가 시작된다.

밀교종단 진각종(통리원장 회성)은 5월 30일 간담회를 열고 〈한국밀교문화총람〉 편찬사업 일환으로 6월 14일 서울 진각문화전승원에서 '밀교의 진호국가와 문두루법' 연구발표회와 10월 진각문화축제서 '문두루법 의식 시연'을 한다고 밝혔다.

〈삼국유사〉에 의하면 문두루법은 나당전쟁이 촉발한 670년 명랑 법사가 당시 신라에서 신성한 곳으로 일컬어진 경주 신유림에서 행한 밀교의식이다.

문두루법은 중국 동진(東晉) 시대 인도승려 삼장 금시리밀다라(三藏帛尸梨密多羅)가 번역한 〈관정경(灌頂經)〉에 근거한 것으로 자신이 부처와 다름없다는 생각을 지니고, 각 방위의 오방대신(五方大神) 명호를 적은 나무를 잘 보이는 곳에 놓고 이에 마음을 모으는 의식이다.

오는 10월 복원 시연 계획도
나당전쟁 국민화합 이끈 의식
국가안녕의 진각종 전통 반영
신라·고려 중점설행, 가치 높아

문두루법은 밀교 특징인 불교의식과 민족고유 신앙이 습합된 모습을 잘 나타내며, 나당전쟁 당시 통일 초기 불교신앙과 사상으로 신라와 백제, 고구려 민중들이 하나로 뭉쳤음을 의미한다.

진각종 창종 71주년을 맞아 열리는 이번 연구발표회에서는 먼저 '진호국가의 의미와 기도의 종류'를 주제로 발제가 이뤄진다.

문두루법 의식 설행의 본 취지인 국가안정과 발전에 대한 기원 의미를 부각시키는 발표다.

진각종은 1947년 한국전쟁 직후 창종하며 국난 소멸과 국가발전을 기원하는 '진호국가 불사'를 주요 종책기조로 표방했으며, 이에 따라 매년 진호국가 불공을 비롯해 다양한 불공을 진행하고 있다.

첫 발표에 이어 '밀교의식 중 문두루법의 위치'를 고찰하고, '문두루법 연구현황 및 의식재현'을 주제로 다양한 논의를 이어간다.

간담회를 주최한 진각종 교육원 교법연구실장 법경 정사는 "북미정상회담이 이뤄지는 6월 12일에 이어 14일 국가발전과 국민통합을 염원하는 의식을 고찰하는 연구발표회가 이뤄져 의미가 깊다"며 "문두루법은 신라와 고려시대 민중, 공동체, 국가 안위에서 개인의 안위 기원으로 이어지는 사상을 드러내는 대표적인 한국전통의식"이라고 설명했다.

법경 정사는 이어 "아직 밀교의식에 대한 대중의 인식이 낮지만, 현재 무형문화재인 영산재와 수륙재처럼 점차 발전시켜 나가고 싶다"고 말했다.

이번 밀교의식 복원 및 연구발표회를 비롯해 진각종은 현재 밀교문화총람 편찬 3개년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2019년 4월 회향하는 밀교문화총람사업은 총서 형식으로 발간되며, 현재 2년차 사업까지 70%가량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진각종 측은 "한국불교문화 저변에 자리한 주술과 의례, 수인 등 다양한 밀교문화를 주목해 국민들에게 한국전통의 소중함을 알려나가겠다"고 밝혔다.

조계종 새 총무부장에 지현 스님 임명

기획실장 일감 스님
사서실장 삼혜 스님


지현 스님


일감 스님


삼혜 스님

지난 5월 1일 MBC PD수첩 방영 이후 조계종 총무원 핵심 부실장들의 사임으로 인해 공석이 된 소임에 제34대 집행부를 이끈 스님들이 다시 자리하게 됐다.

조계종 총무원장 설정 스님은 5월 28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서 신임 총무부장에 지현 스님(조계사 주지), 기획실장에 일감 스님을 임명했다. 지현 스님과 일감 스님은 제34대 집행부에서 맡은 소임을 이번에 재차 맡게 됐다. 이어 31일에는 사서실장에 삼혜 스님이 임명됐다.

설정 스님은 임명장을 전달한 뒤 "부실장 인사를 하는데 상당히 고심했다. 본사주지를 비롯해 많은 사람의 얘기를 듣고, 소통을 잘할 수 있는 분으로 모셔야 한다는 의견을 들었다"며 "이번에 임명된 부실장스님들은 어디에 치우치지 않고 가장 원만하게 소임을 볼 수 있는 분이라고 주변에서 추천받았다. 고생이 많겠지만 잘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설정 스님은 이어 "지금 시기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종단 교권자주혁신위원회가 만들어졌으니 잘 구성해서 종단 매사를 잘 풀어가는 데 최선을 다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총무부장 지현 스님은 "원장스님을 모시고 부실장스님들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인사했다.

한편 총무부장 지현 스님은 법종 스님을 은사로 1971년 수계(사미계)했다. 총무원 문화부장, 조계종사회복지재단 상임이사, 한국불교문화사업단장, 역사문화조성추진위 총도감, 제12~16대 중앙종회의원을 역임했으며, 현재 조계사 주지를 맡고 있다.

기획실장 일감 스님은 원융 스님을 은사로 1990년 수계(사미계)했다. 자성과 쇄신결사추진본부 사무총장, 총무원 기획실장 및 재무부장, 불교문화재연구소장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완주 옥련암 주지를 맡고 있다.

삼혜 스님은 탄허 스님을 은사로 1982년 수계(사미계)했으며, 삼장사·금당사 주지 및 제15~16대 중앙종회의원을 역임했다. 현재 영월 보덕사 주지를 맡고 있다.

윤호섭 기자

청소년 불교문화재 전문가 양성

파라미타·불교중앙박물관, 문화체험 MOU

어린이 청소년들의 불교전통문화 교육과 체험활동을 위해 불교계 청소년단체와 문화재 기관이 손을 맞잡았다.

파라미타청소년협회(협회장 심산)와 불교중앙박물관(관장 오심)은 5월 28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시청각실에서 어린이 청소년 불교전통문화체험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파라미타청소년협회는 문화재청과 함께 '문화재 지킴이' 활동을 펼치고 있는 대표적인 불교계 청소년 단체다. 현재 2만2000여 명의 청소년 회원들이 활동하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은 파라미타가 진행하는 문화재 지킴이 활동과 관련해 각 지역서 불교성보박물관 학예사들이 불교문화재에 대한 설명과 안내, 문화재 보존활동에 대한 교육을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 성보박물관 탐방 등 청소년들의 박물관 체험 프로그램도 진행된다.

불교중앙박물관장 오심 스님은 "많은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불교문화를 접하고 애정을 갖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기대를 표했다.

파라미타협회장 심산 스님은 "불교문화재는 우리 문화재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체계적인 문화재 교육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본다"고 말했다.

파라미타청소년협회 관계자는 "충북 파라미타 활동을 하면 적어도 충북지역의 문화재, 그리고 불교문화재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파라미타 활동 후에도 지역 문화재 보존을 위한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번 업무협약 취지"라고 밝혔다.

노덕현 기자



성운 스님의
보리수 아래서

삼법인 영원한 것은 없다

'십년 세도 없고 열흘 붉은 꽃 없다'(權不十年 花無十日紅)는 권력무상을 잘 나타내는 말입니다. 요즘 불자들은 전직 대통령들과 그 주변 인물들에 대한 뉴스를 보고 들으면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다"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되새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대단한 권력과 부귀영화도 인연따라 왔다가 인연따라 사라집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무상하고 무상한 것은 괴로움이고 괴로운 것은 무아이다'라고 일러 주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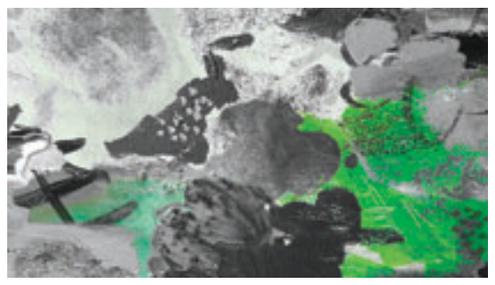
*모든 것은 덧 없다(諸行無常)
모든 것은 괴로움이다(一切皆苦)
모든 것은 실체가 없다(諸法無我)

같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범부 중생은 항구불변을 바랍니다. 영원히 살 것처럼 재산과 명예와 권력 그리고 바라는 모든 것에 집착합니다.

제행 무상은 중생의 이러한 착각을 일깨워 주는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모든 것을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지혜의 눈으로 제행이 무상함을 바르게 보는(正見) 공부를 합시다.

***일체개고:** 제행이 무상한데 유상으로 착각하면 삶이 힘들고 괴롭습니다. 사성제의 고제(苦諦)에서 팔고(八苦)를 살펴 보았듯이 자기가 바라는 대로 되지 않았을 때 갈애가 생기고 집착이 일어나 괴롭습니다. 이 이


삼법인 · 성주괴공 그림 · 조향숙

내 몸이 내 것입니까?
'무상 고 무아' 바로보면
집착 떨어져 열반적정에

이 게송은 불교의 세 가지 근본교의로 삼법인(三法印)이라고 합니다.

부처님의 깨달음을 나타낸 불변의 진리 삼법인은 법의 특성으로 불교인지 아닌지 판별하는 잣대입니다.

괴로움을 바르게 보고 청정에 이르는 삼법인의 가르침은 연기법, 사성제와 일치합니다.

***제행무상:** 일체 함이 있는 세간의 움직이는 모든 모습이 제행입니다. 유위(有爲)와 같은 뜻입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은 순간순간 끊임없이 생멸변화합니다.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행은 덧없는 것, 제행무상입니다.

마음은 생주이멸(生住異滅)하고
육신은 생로병사(生老病死)하고
우주는 성주괴공(成住壞空)합니다.

〈금강경〉에서는 일체유위법을 꿈, 환상, 물거품, 그림자, 이슬, 번개와 같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범부 중생은 항구불변을 바랍니다. 영원히 살 것처럼 재산과 명예와 권력 그리고 바라는 모든 것에 집착합니다.

제행 무상은 중생의 이러한 착각을 일깨워 주는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모든 것을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지혜의 눈으로 제행이 무상함을 바르게 보는(正見) 공부를 합시다.

***일체개고:** 제행이 무상한데 유상으로 착각하면 삶이 힘들고 괴롭습니다. 사성제의 고제(苦諦)에서 팔고(八苦)를 살펴 보았듯이 자기가 바라는 대로 되지 않았을 때 갈애가 생기고 집착이 일어나 괴롭습니다. 이 이치를 바르게 보고 알면 집착과 탐욕을 내려놓게 됩니다.

***제법무아:** 모든 법은 인연으로 생긴 존재이므로 나라고 할 실체가 없습니다. 나 또는 내것이라고 집착하는 자아(自我)는 조건에 의해 일시적으로 생겨난 무상한 오온(色受想行識)에 매달리는 현상입니다.

내 몸이 내 것이면 늙고 죽음을 왜 내 뜻대로 못할까요. 모든 존재는 생멸하는 연기(緣起)만 있을 뿐 고정된 실체가 없으므로 제법무아입니다.

***열반적정:** 무상-고-무아의 이치를 깨달아 탐진치 삼독이 소멸되면 열반적정(涅槃寂靜)에 이릅니다. 삼법인에 더해 사법인이라 하거나 일체개고를 빼고 삼법인이라고도 합니다.

최근 타계한 LG그룹의 구본무 회장은 무상과 무아를 바르게 알고 실천한 기업인이라고 생각됩니다.

도덕적 기업 경영과 소박하게 떠난 마지막 길에서 그의 본지풍광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불자 여러분 무상과 무아를 잘 공부하여 완전한 행복에 이릅시다.

〈삼천사 회주 · 동국대 석좌교수〉

'참선수행의 최고 안내서'이자 '수행 고백서'
원오심요 역주

'불법이란 무엇인가?' '어떻게 수행해야 하는가?'
중국 송대의 선의 종장인 원오극근 선사가 법을 묻는 이들에게 보낸, 선의 요체를 담은 가르침!
원오극근 지음/강승욱 역주/신국판 양장/976쪽/값 45,000원

참선하여 도를 깨치는 문으로 이끄는 '깨달음의 노래'
증도가 합주

『육조단경』과 함께 선종의 '이부경전二部經典'으로 불리는
『증도가』의 대표적 주석서 4가지!
남명 법천 외 저/철우 역주/신국판 양장/496쪽/값 25,000원

번뇌를 끊는다니 말이나 되는가!
번뇌를 끊는 이야기

번뇌를 끊으려는 그 생각이 또한 번뇌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번뇌를 끊는다고 말하고 나와야 한다.
조계후학 현웅 저/신국판 양장/520쪽/값 25,000원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67-1 성심빌딩 3층 ● 전화 (02) 926-8361 ● 팩스 0505-115-8361 ● 주문 (02) 3672-7181 ● 다음카페: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